

# 수요 인터뷰

## “환경운동 보살정신서 출발”

지난해 환경처 장관을 역임한 대한회 박윤환(朴潤煥, 61) 이사장은 다시 강단(경희대 법과대 교수)으로 복귀한 이후 강연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조계종 교육원이 직지사(직지사에서 주최한 본사주지 및 종친스님연수회)에서 ‘불교와 환경’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친 박 이사장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한다면 환경문제는 제기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환경문제는 불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유난히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제기됐던 시기에 -근여동안 환경처장관이란 중책을 맡아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셨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벗으셔서 즐거운 하시겠지만 여전히 바쁘시죠.

▲화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여기 지기 강연요청도 있고 그간 밀려있던

래일이 놓이는 시기입니다. 설마하는 사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지구권체가 파괴되기 직전이지요.

—인간이 잘살겠다는 욕구와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별심이 결국은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신심깊은 불자로서 환경의 총체적인 실무일을 담당하셨었는데 많은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살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부처님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교 교리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점점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처 장관을 불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불교적 인식을 갖고있는 이가 해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전 환경처장관 박 윤 환 교수  
대담: 최정희 편집국장

개인일도 정리하다보니 몸이 바쁜것은 여전합니다.

—얼마전 직지사(직지사에서 주최한 종친스님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점을 강조하셨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본래 모든 만물이 그 자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조화가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이 만물의 조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자연의 생명체나 식물이 훼손되고 멸종되는 것

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인들이 환경에 더욱 적극적이야 한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불교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환경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데 왜 불자들은 인식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자라면 모두가 오해를 받는데 그 가운데 살생죄를 말하는 게 틀림이 있습니다. ‘살생유대’하여야 합니다. 인간 이외의 생물에 대한 저버가 없어져 제미로 사랑

인한 오염된 공기로 피해가 높고있어요. 중국은 아직 더 개발을 위해 오염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염방지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화석연료의 23% 이상을 사용하는 미국은 세계기후협약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익은 물론 국가간에 이익도 문제지요.

다행히 그린피스, 멸종위기종에 닥쳐있는 동물보호운동, 열대림보호협회등의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창살리기등의 환경보호운동이 펼쳐지고있습니다.

—환경처 장관을 역임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중점을 두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공짜에 익숙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공짜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담배공초를 버리면 치우는 경비가 당사자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금을 통해 자신이 부담하지요. 이것을 경각시키기 위해 환경부담금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것

이죠. 또한 먹는 물 해결을 위해 오염된 강과 지하수는 수원지를 청정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원회와 장기기증운동본부등 이들을 먼저 불교의 생활화를 주창하고 계시는데 불교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바람과 앞으로의 계획은.

▲종교운동도 자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포교활동화를 위해서는 영구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가 학문에 주력해야 하겠지만, 논문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전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고싶어요.

특히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국신도회 차원으로 불교와 환경운동을 전개 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이준영 기자)

### 오직 자비심만이 병든지구 치료가 가능 “탐욕이 원인...발우공양등 솔루션이다”

은 곧 자기 자신의 몸이 잘리는 것과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현대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지구사랑’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위기상황임을 이상기후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요.

▲엄마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가 (지구의 위기-EARTH IN THE BLANCE)란 책에서 모래산을 소개하면서 지구환경을 설명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를 쌓아가다보면 어느단계에서는 작은 모래 한알을 놓았을때 모래산 전체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의 지구 환경은 바로 모래산에 마지막모래를 작은 모

을 하곤 합니다.

또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전체 쓰레기의 1/3이 음식쓰레기입니다. 이것도 발우공양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주식은 남기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먹지 못할 양이면 미리 덜어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 전환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의 조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환경위기를 눈앞에 볼듯 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과 자국의 이익에 눈이 가려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구환경은 이제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을 이루는 국가들이 상호연조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국의 개발로

를 국가간에 이익도 문제지요.

다행히 그린피스, 멸종위기종에 닥쳐있는 동물보호운동, 열대림보호협회등의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창살리기등의 환경보호운동이 펼쳐지고있습니다.

—환경처 장관을 역임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중점을 두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공짜에 익숙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공짜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담배공초를 버리면 치우는 경비가 당사자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금을 통해 자신이 부담하지요. 이것을 경각시키기 위해 환경부담금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것

### 나의 수행일기

오늘은 (정안신탁 추후지정)

나는 반야심경을 즐겨 읽는다. 그 반야심경은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참된 깨달음을 통하여 밝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사바의 세계는 인연에 의해 태어나지고, 늙고, 병들고, 죽고하는 법,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갈아야 하는 길을 원망에 쌓인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세상은 괴로운 것이고 반면에 인간이 진실한 생명에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예지인 지혜의 눈을 뜨고 바라다 보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삶은 가치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14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청빈 현상에서 다녔고, 자연스럽게 어스프레 하게되거나 부처님의 세계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어스프레 느낀 부처님의 법연만으로 방황하기 쉬운 사춘기를 무사히 보내기란 무척 어려웠다.

나의 사춘기를 되돌아켜 보면 경제적 어

### 반야심경·청담수상집 읽고 논다 성철스님 기리는 음반취입 ‘감사’

려움에 힘겨워했던 모습이 역력했다. 좁은 면에서 3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그 만큼 책임감도 무거웠다. 그러다 보니 나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나의 위치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세상을 운동 모순덩어리의 알 수 없는 세계로 오해하게 되었다.

불자로 살아가는 지금에야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각각각색의 불로 태어나는 줄 알지만 그 당시의 난단순히 힘겨움에 방황하고 세상을 부정할 뿐이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사는



세계되면 눈에 비추이는 모든 것들의 내면에 비친 불성들이 곳곳에서 맑고 푸른 물결처럼 반짝이는 물결처럼, 백설이 하얀 설원위에 홀로이 우뚝 선 난초처럼 환하고 맑게 빛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대자연의 풍경속에서 ‘상구보리 화와종생(上求菩提下化眾生)’ 마음을 가진 보살의 심경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다.

세상상이 구석구석에서 불법을 만나고 실천하면서 나는 오늘도 해안을 향한 행

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다. 해안을 얻는 방법은 어렵고 높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있다.

요즈음 나는 김미연씨의 노래 반야심경과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난 부처님과의 인연 덕분에 성철스님을 기리는 음반도 취입하게 되었다. 부처님과 스님의 법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지 모르겠다. 오늘의 이 행복함으로 불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 열린 세상을 가꾸고 싶다. 또 그러기 위해 앞으로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 갈 것이다.

그런데 중에 극작일리지도 모르게 내 나이 35세 때 청담스님의 ‘산사에 실은 뜻은’이란 수필집과 반야심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불교에 입문한 계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선지식인들의 높고 큰 세계를 대하게 되었고, 방황하던 내 젊은 날은 정상 궤도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후 나는 불자라고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종교인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흥법등

흥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흥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흥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억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문제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일일이 풀칠을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정밀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흥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색색의 문양과 마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각등의 고종과 문헌을 토대로 ‘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확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이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필름을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입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에 활요’, ‘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보완하는 흥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032) 613-4027-8 팩스 (032) 665-0965

### 교육과정

위 과정은 본 교육원이 보건사회부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으로 지정 받아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아동심리, 유아교육론 중심으로 36과목

- 소양분야
-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이론
-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
- 기타

1. 접수기간 : 1995년 3월 10일
2. 모집인원 : 200명(주·야 각 100명)
3. 교육기간 : 1995년 3월 - 1996년 2월(1년 과정)
4. 교육시간 : 주 5일 (월-금)  
주간반 100명 (09:30 - 12:50)  
야간반 100명 (18:20 - 21:30)
5. 등 록 금 : W 720,000(교재비 포함), 입학금 W 10,000 별도
6. 응시자격 : 고졸 이상의 학력 및 당해년도 2월 졸업예정자,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인정제한 없음. (검정고시출신 및 주부환영)
7.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동일장 사본가능),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반명판 사진 4매,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서약서(소정양식), 도장

### 특 전

- 보사부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 부여
- 어린이방, 놀이방, 가정교사로 근무 및 직급 운영
- 포교사 자격 취득 가능
- 본교 도서관 이용
- 전산교육원 수강 가능(OA 과정)
- 써클활동 가능(꽃꽂이, 연극부, 수지침, 수화)
- 클래식 피아노, 정규과목으로 수강
- 지하철 이용시 ‘할인혜택’

### 중앙승가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전화: (02) 929-5004  
926-4377  
팩스: (02) 921-9721

등록처  
1. 교육원 교학과(기획실)  
2.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 287-22-00164-0  
예금주: 학교법인 승가학원